

[책읽기를 말한다]

“독서가 과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
새해 그 해답을 독서에서 찾아보자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해 계획을 세운다. 신체단련, 다이어트, 공부 성적 올리기 등 저마다 제각각의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신년 계획에 책읽기를 무조건 포함시켰을 것이고 책읽기를 넘어 다독왕에 도전하는 것으로 잡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아 지금껏 '진부'한 '독서이야기'를 주절주절해보려고 한다.

“독서가 과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쩌면 이 역시 진부한 질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새롭다. 왜냐하면 책을 읽음으로써 언제나 생각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언제나 똑같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그러나 말하면 서도 아마 마음속으론 뜨끔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일 테니까.

독서의 필요성을 꼽으라면 수만가지의 답을 들 수 있다. 독서는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물론 힘과 용기를 얻어 변화하려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디슨은 어린시절 문제로 지독받아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다. 열등생으로 취급받던 에디슨은 어머니는 집에서 독서로 양육하였다. 이로 인해 에디슨은 디트로이트의 도서관의 책을 모두 읽을 만큼 독서를 즐겼다. 에디슨은 자신이 창안해낸 모든 발명의 근원은 책이었다고 했다.

헬렌켈러는 장애인, 귀머거리, 병어리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을 때 헬렌켈러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손가락 끝으로 느낀 독서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서를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견지와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독서를 한다고 모두 위인들처럼 인생을 변화시키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열심히 함으로써 몰랐던 지식을 얻고 성공의 지름길을 찾는다.

이렇듯 독서는 더욱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역설적으로 고달프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다. “책을 읽는 것이 고달프다고 여기지 말라. 그것은 세상을 보는 길이다.” 그리하여 독서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아마도 독서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시킨 것을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식이란 생산성과 혁신을 낳는 것이다. 독서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킨다.

이토록 독서가 유용하다는 건 자명한 리치이지만 우리는 단지 유용하다는 그 이유로 책을 읽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마땅히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느끼고자 하는 그 때 순간에 독서를 해야 한다.

더불어 2025년 새해에 더욱 나은 자신을 위한 책읽기,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를 시작해보자.

/ 김가혜기자

“읽어야 이긴다”, 독서 명언 속 책읽기 지혜

세월이 지나도 많은 위인과 사람들이 독서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점은 많지만 단점은 없는 독서, 독서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을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연속인 인생에서 독서를 하며 새로운 것, 살아가는 법, 인간관계, 실패와 성공 등을 책 속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읽어야 이긴다.”는 말도 있다. 아래 독서 명언을 통해 그 속의 지혜를 찾아보자.

◎ 만권의 책을 독파하면 귀신처럼 붓을 놀릴 수 있다. —두보

◎ 독서의 귀중함은 의심을 품는 데 있다. 의심을 품어야 배움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중국 속담

◎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을 가장 많이 생각하도록 하는 책이다. —마크 트웨인

◎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이 아니라 책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아니톨 프랑스

◎ 책은 드넓은 시간의 바다를 향해하는 배다. —프랜시스 베이컨

◎ 책은 한권한권이 하나의 세계이다. —윌리엄 위즈워스

[오늘의 책]

기묘한 마음의 여행으로 안내하는 《추원》



중국의 여자가 양분본의 첫 장편 소설 《추원》은 자전적 소설로서 주요하게 어머니 추원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서술하고 있다. 미사리구나 복잡한 수사법이 없지만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이런 간결한 문자 풍격은 이야기에 더욱 진실성을 부여한다. 마치 한 로인이 우리 앞에 앉아 조용히 지난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 내포된 감정은 오히려 독자들을 깊이 감동시키는 것 같다.

간단한 문장 하나에도 목격한 생활의 무게가 실려있다. 레를 들면 추원의 힘겨운 생활을 묘사한 단편들, 그 잔잔한 서술들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잔혹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추원의 강인함에 감탄하게도 한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뿐더러 우리에게 계시를 주기도 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용감하게 생활의 도전에 맞받아나가기도록 격려해준다.

/ 종합

읽기 빌리기가 모두 가능한 ‘기차역 책카페’ — 음력설 려객수송에 새로운 변화를

올해 음력설 려객수송 기간, 역의 책카페가 광주백운역, 광주남역 등 교통중추에 출현하여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인류 계절성 이동인 ‘음력설 려객수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도착과 출발이 교차되며 인구 이동으로 붐비는 기차역에 책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광주백운역 대합실 5A 개찰구 부근의 ‘화성책방’에 들어서서 10명이 넘는 독자들이 여기저기에 나뉘어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소학교 4학년생인 려정도 그중 한명이었다. 한창 우주선에 관한 책을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었다.

불산에서 왔다고 밝힌 려정의 어머니는 오후 4시 기차로 료녕으로 가는 길인데 발차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다면서 마침 도서관이 있는 걸 보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편리하고 또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할 수도 있어 이 도서관이 아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백운역의 ‘화성책방’에서 승객들이 한창 책을 읽고 있다.

광주백운역의 책임자는 광주백운역 ‘화성책방’ 및 광주도서관 분관은 광주역이 광주도서관과 연합하여 중요한 교통중추에 개설한 첫 역전 책카페라고 말했다. 책카페의 부지면적은 약 100 평방미터에 달하며 문학, 예술, 려행 등 사회과학, 자연과학 도서와 아동 및 청소년 도서를 망라한 5,000여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사람들로 붐비며 드바쁜 음력설 려객수송 기간, 소란스러움 속에서 색다른 조용한 분위기를 내뿜는 기차역 책카페는 이 특별 운송 기간에 새로운 품격과 인문적인 배려를 가져다주었다.

한편 광주남역의 기차역 책카페 옆에 놓여있는 한 디지털 독서공간 큐알코드와 홍보 포스터가 많은 려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승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독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철도광주국그룹유한회사는 1월 19일에 ‘광철열독’ (广铁悦读) 디지털 열독공간을 개설했다. 승객들은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핸드폰으로 책을 열독할 수 있게 된다.

“방금 책방에서 보던 책을 빌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나와 보니 디지털 독서공간 큐알코드가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무료로 볼 수 있어 너무 편리하네요.” 막 스캔을 마친 하선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책카페의 도서관리원 증금방은 “매일 책카페를 찾는 려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책을 빌려가 차에서 읽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책카페는 려행객들의 개성화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기 신간 도서와 고전 도서를 갱신할 뿐만 아니라 셉트 도서대여기를 설치하여 려행중에 있는 독자들에게 도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금방에 따르면 셉트 도서대여기는 현재 려행객들을 상대로 무료 회원증 발급, 대여와 반납, 열독 등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대여한 도서는 21일 이내에 광주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시스템내의 임의의 도서관에 반납하거나 또는 돌아올 때 광주남역 1층 동남 모퉁이에 있는 종합서비스센터의 도서반납구역에서 반납할 수도 있다. 미처 반납하지 못할 경우, 무료로 3회까지 더 연장 대여할 수 있다.

기차역 책카페는 음력설 려객수송의 시대적 진보를 반영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력설 려객수송에 문화 저력을 더해주고있고 문화중국의 건설에 힘을 더해주었다.

/ 신화사

[추천도서]

채국범 중단편소설집 《노크》 출간

채국범의 중단편소설집 《노크》가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소설집은 3만여자의 분량 속에 〈노크〉 등 중편소설 5편과 〈날개 돌친 기린〉 등 4부의 단편소설을 수록했다.

소설집에는 위기에 처한 사회 약소군체, 숨겨진 인격장애자, 급속한 도시화 발전 속에 외면된 농민공의 고독과 웨침, 바다로 돌아가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한마리 나비, 7년 만에 드디어 끝낸 동행, 량심과 려혼을 지켜가며 길바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민초들 등 다양한 인물과 이야기가 담

겨져있다.

저자는 이 작품집을 두고 “일련의 이야기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소설집은 인물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시각과 퍼즐 같은 구성 및 의식 흐름의 서사방식으로 사회 여러 군체들의 생존 상태와 심리적 갈등을 보여 주면서 세계와 개인의 관계, 자아와의 갈등과 화해를 체현하려 했다.”

한편 책의 저자 채국범은 연변대학 일어학부를 졸업했으며 현재 연변작

가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국작가협회 회원이고 제 8차 전국청년작가창작회의 대표이며 료신문학원 제 40기 중청년작가 고급연수반을 수료했다.

2002년 《연변문학》에 처녀작 〈하늘과 바다 사이〉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한 후 장편소설 《머나먼 연》, 중단편소설 《섬 속의 섬》, 《마지막 퍼즐》, 《해나》, 《동그라미》, 《동행》, 《미아의 화실》 등을 발표했다. 《연변문학》문학상 신인상, 소설 대상 등 수상 경력이 있다.

/ 김가혜기자

우리 나라 도서 소매시장 전체 규모 안정세 유지

중국출판협회와 중국도서관협회 발행업협회가 일전 북경에서 주최한 2025 열독 x 대회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우리 나라 도서 소매시장의 도서 정가총액 규모는 1,129 억원에 달해 총체적인 규모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 세분별로 보면 생활, 교육보조, 언어, 자연과학, 아동과 교육 분야 도서의 정가총액이 플러스 성장을 실행했다. 그중 생활류와 교육보조 도서의 증가폭이 뚜렷했다.

도서 정가총액은 한편의 도서 정가와 판매 책수를 곱한 것이다. 한 종류의 도서 소매시장을 놓고볼 때 도서 정가총액은 해당 분류 시장의 모든 도서 정가를 더한 합계이다.

포럼에서 발표된 년례보고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도서 소매시장은 여전히 변혁과 전환을 거쳤는데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의 소비 습관과 경영 모식의 전환에서 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로 분화, 정책 추동 및 기술 변혁 등 여러 면에서 구현되었다.

경로별 도서 정가총액 구조 비율로 볼 때 플랫폼 전자상거래의 비율은 40.9%, 콘텐츠 전자상거래의 비율은 30.4%, 수직 및 기타 전자상거래의 비율과 오프라인 매장의 비율은 각각 14.7%와 14.0%였다. 도서의 종류별 정가총액 구성을 보면 아동류의 비율이 28.16%로 가장 높았고 교육보조류의 비율은 25.33%,

문학과 학술문화류의 비율은 7~9%였다.

중국도서관협회 발행업협회 리사장 애립민은 “근년에 우리 나라 오프라인 서점은 수량 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특색이 선명하고 업종 형태가 다원화된 새로운 서점들이 융솟음쳐나왔다. 온·오프라인로 볼 때 플랫폼 전자상거래의 비율은 40.9%, 콘텐츠 전자상거래의 비율은 30.4%, 수직 및 기타 전자상거래의 비율과 오프라인 매장의 비율은 각각 14.7%와 14.0%였다. 도서의 종류별 정가총액 구성을 보면 아동류의 비율이 28.16%로 가장 높았고 교육보조류의 비율은 25.33%,

고 소개했다.

중국출판협회 리사장 오서림은 “출판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심층 응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신속하게 적응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짝 따라가야만 변혁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출판업은 반드시 고도의 예리함과 자각성을 유지하고 고신과학기술을 적극 포용하여 출판사업의 각 고리에 전방위적으로 융합시켜야 한다. 시대의 수요에 부합되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전력 탐구함으로써 출판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화넷